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8. NEW YEAR vol. 015

2018

Person of

the year

"You"

신우하이텍

별을 쏘다

2018 NEWYEAR **vol. 015**

발행일 | 2018년 2월 9일 (통권 제15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성우에게 당신은 언제나 최고

INSIDE SUNGWOO

04 New Year's Address "위기를 기회로, 우리 안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07 Issue & News

10 2017 Top News 성우인이 직접 뽑은 2017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12 SUNGWOO People 성우가족이 전하는 신년 인사

14 Challenge SUNGWOO 성우인들,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을 수놓다

18 현장24시 우수한 품질이 곧 자긍심 - 성우하이텍핫스탬핑

22 SUNGWOO Family 빠른 아이보다는 바른 아이로 자라길

SPECIAL THEME : 얼굴

24 Photo Essay 윤두서 자화상 尹斗緖自畫像

26 Column 해학과 재치, 팍팍한 삶을 위로하는 웃음의 미학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28 Art Story 스크린에서 되살아난 그때 그 얼굴들

32 Special PyeongChang 올림픽의 얼굴, 마스코트 이야기

34 Physiognomy 얼굴이 말하는 당신의 인생, 관상을 보다

36 We are SUNGWOO 우리는 성우하이텍입니다.

FUN SUNGWOO

38 Safety 전사가 한마음으로 '안전제일(安全第一)' 성우!

40 Smart Life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은 너 "이 단어, 실화냐?"

44 Going Bucket Festival List 봄날의 축제 속으로~ - 3~5월 편

50 Manner makes man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

52 Tasty Road 정성으로 끓여내는 진하고 뜨끈한 한 그릇

54 Social Contribution 성우공동모금,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57 Event 새해 다짐 스티커로 RE Start!

"위기를 기회로, 우리 안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2018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힘찬 첫걸음을 여러분과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한결 같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수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쓰러지기도 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발판을 마련할 때입니다.

장기화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의 경영 환경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제어할 수 없는 외부 환경만 탓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날, 낙관적인 미래만을 예측하고 안일하게 안주한 점에 대하여 반성해야 합니다.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해외 경쟁사들의 실력을 선입견 없이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안의 보물을 캐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실을 탄탄히 다져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성우하이텍에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찍이 해외 진출에 집중한 결과, 세계 각지에 풍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과, 우리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탄탄하게 키워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때,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우 가족 여러분!
어떠한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성우하이텍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창의적인 발상이 눈부신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가족, 친지, 동료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성우하이텍 회장 이 명 근

"Let's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A year to cultivate our unlimited potential!"

To my fellow Sungwoo Hitech family members!
2018, the "year of the golden dog," has arrived. I am extremely happy to usher in this new year with you.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st gratitude to everyone at Sungwoo Hitech for always doing their best.

"Let's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Some companies wither away when they fall on hard times, while others turn whatever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take a leap forward. Right now, it is time to turn crisis into a foundation for future opportunities.

With the continued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and spread of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cross a variety of countries, it is indeed true that we currently face a tough business environment.
Last year, the unexpectedly poor performance in the Chinese market made things even tougher.

However, we should not fall into the trap of putting all the blame on the external environment, which we have no control over. We must reflect on the fact that we painted too rosy of a picture for our future, became complacent, and settled for less than ideal outcomes.
We must look closely to see if we are producing products with outstanding quality and commercial appeal. We must also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e capacity and competence of our overseas competitors without bias.

But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focus on finding hidden gems within ourselves this year.
We must reinforce our internal structure to ensure our company remains stable in the face of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We need to spearhead innovation in future technology, improve productivity, and eliminate unnecessary equipment. Furthermore, we have to improve the capacity of our workforce with well-organized and systematic training.

Sungwoo Hitech still has unlimited potential. Thanks to our vision to expand overseas early on, we have a robust network that spans all over the world. Sustained effort on that front has seen more and more business partners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with us. Once we build up our capacity and turn our unlimited potential into reality, we will become a truly global corporation.

My fellow Sungwoo family members!
Let's all come together to create a steadfast Sungwoo Hitech, a company that can stand strong in the face of any storm. Let's do our best to make sure creative ideas result in brilliant results
And last but not least, I hope you have a happy year alongside your family and friends.
Thank you.

Chairman Lee, Myung-Keun

NEWS

"위기를 기회로"

2018년 시무식 개최

당사는 1월 3일 국내 및 해외 13개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께서는 신년사에서 "위기를 기회로"를 올해의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장기화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으로 경영 환경이 순탄하지 않지만, 제어할 수 없는 외부 환경만 탓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18년에는 내실을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날 2017년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은 설비기술반 강동완 반장에게 수여되었다. 강 반장은 프레스 생산성 향상 TFT로 활동하며 설비와 공정 개선으로 생산속도를 향상시키고, 자동화로봇 동작 시간을 단축하여 서창공장 SPM 20.4%, SPH 34.9% 향상에 기여했으며, 크레인 안전장치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여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강 반장 이외에 원가절감, 성과포상건수, S-Thanks건수, 개선활동 등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된 45명에게는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성과 포상은 32건에 대하여 28명이 수상하였으며, 임직원들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년에 비해 포상금액을 3배로 늘렸다.
2018년 한 해도 수많은 성과들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성우하이텍이 되기를 기원한다.

NEWS

㈜성우하이텍, 2017 대한민국 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11월 16일 서울 COEX 3층 D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성우하이텍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을 가능하게 한 ㈜성우하이텍의 '가변 롤 포밍 성형 공정'은 상하 좌우 독립된 성형 롤러에 프로파일 판재를 투입해 단면을 연속 공정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성형 롤러 궤적이 가변적으로 움직여 성형 속도에 따라 성형부의 궤적이 연동되고 롤러 위치에 따라 제품의 폭과 깊이 등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원가를 5~10%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자비도 약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을 우대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정부 포상이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19회 부산마라톤대회 성료

깊어가는 늦가을, 부산 서부 해안을 달리는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19회 부산마라톤대회'가 2017년 11월 12일 오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부산 유일의 풀코스(42.195km) 마라톤 대회인 이번 대회에 ㈜성우하이텍은 메인 후원사로서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128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22명이 하프코스와 풀코스에 도전하였다. 낙동강변을 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한 시간이었다. » 관련 기사: 14p

2017년 정년퇴임식 개최

2017년 12월 27일, 정년을 맞은 조의현 부장(제작2팀), 이광영 기장(조립1반), 강자야 기장(조립4반), 전병기 조장(생산기술1반), 김영근 기장(밤바조립반), 최인식 기장·백준기 기장·박동진 기사(지사 조립계)의 퇴임식을 열었다. 국내 및 해외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며 학습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담은 퇴임사는 참석한 후배사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은 여덟 분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를 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꾸리기를 기원하였다.

㈜성우하이텍, 2017 부산 Trade Night 행사에서 산업포장 및 5억불탑 수상

2017년 12월 12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7 부산 Trade Night' 행사에서 ㈜성우하이텍이 산업포장 및 5억불탑을 수상하였다. '2017 부산 Trade Night' 행사는 부산 수출을 책임지는 수출 기업인을 한자리에 모아 한 해 성과를 자축하고 수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허용도 부산 기업협의회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수출기업 대표 및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사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사드문제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5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여 참가 기업 중 유일하게 5억불탑을 수상하였다. ㈜성우하이텍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신기술 도입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에 더욱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성우하이텍, 2017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2017년 11월 29일 (사)희망웅상 및 웅상나눔회와 함께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성우공동모금회'가 전액 후원한 비용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성우하이텍 직원 25명을 비롯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도 동참하여 더욱 뜻깊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600포기는 웅상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노인무료급식소 등 100여 곳에 전달되었다. » 관련 기사: 54p

㈜아산성우하이텍, 이웃사랑 모금 기탁

㈜아산성우하이텍은 1월 5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신창면과 선장면에 각각 500만 원씩 전달하였다. 윤성환 이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힘을 합쳤고, 지역 복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여 성우인들의 마음을 환하게 했다. 모금액은 행복키움추진단 및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54p

01

5억불 수출탑 달성
(12월)

02

가변롤포밍 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4월)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11월)

성우인이 직접 뽑은

2017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2018년 무술년을 알리는 희망찬 해가 떠올랐다.
생산 현장에서, 해외 사업장에서, 국내 사업장 곳곳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성우인의 2017년 한 해.
어떤 일들이 성우인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을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 최고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03

성우하이텍 직장 어린이집 개원
(3월)

04

중경성우 신 공장 가동
(9월)

05

삼영핫스탬핑 공장 합병
(10월)

06

IK F_LINE 적용 및 양산 론칭
(8월)

07

통합 모바일 구축
(11월)

08

PI 도입- 1단계 수행,
2단계 Kick-off (12월)

09

부산MBC 공익 캠페인
(11월)

10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 표창 (12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 구매사업부&원가사업부

금형개발사업본부

성우가족이 전하는 **신년 인사**

지난 1월 3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시무식이 열렸다.
이날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는
'새해맞이 동영상' 상영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성우가족들이 참여하여
새해인사를 전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스리슬쩍 숨겨둔
웃음 코드, 성우가족의 진~한
동료애가 넘쳐나는
2018년 새해맞이 동영상들을 만나러
Let's Go!

독일

러시아

멕시코

인사정보사업본부

생산/기술본부 기술사업부

생산/기술본부 생산사업부 보전팀

생산/기술본부 생산사업부 생산관리팀

슬로바키아

아산생산기술팀

아산인사총무팀

R&D본부

염성

인도

장안

정관

중경

지사

창주

체코

품질본부

핫스탬핑

부산마라톤대회
적신호시

성우인들,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을 수놓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19회 부산마라톤대회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19회 부산마라톤대회'가 11월 12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것은 성우인들이었다.

성우인들이 새로 쓴 가을의 기록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대회'인 만큼 이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번 뜨겁다. 가까운 경남·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마라토너들도 다대포해수욕장과 낙동강 하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달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코스 역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적어 초보자가 뛰기에도 부담이 덜한 편에 속하는데, 다만 낙동강 하굿둑~공항로 왕복 구간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맞바람이 불어와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풀코스 도전자라면 이 코스에 대비한 훈련을 해 둘 것을 추천한다.

19회 대회가 열린 11월 12일 오전.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차가운 바닷바람까지 더해졌지만 8,000여 명에 이르는 도전자들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만 해도 300여 군데 4,500명에 달하였다. 낮아진 기온에 대비하여 대회 주최 측에서는 구급차 11대와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을 배치하였다. '기록보다 안전'을 우선시 한 주최 측의 배려에 힘입어 마라토너들은 오직 마라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많은 참가자·단체 중에서도 성우하이텍 임직원들은 단연 눈에 띄었다. 매년 봄·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부산마라톤대회' 후원사로 참가하였다. 매번 달리던 중·단거리 코스와 다른, 모처럼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기회에 참가 지원을 한 임직원만 해도 128명. 그중 22명이 하프코스와 풀코스에 도전하여 완주라는 짜릿한 열매를 맛보았다. 깊어가는 가을을 흠뻑 느끼며 동료애를 돈독히 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

아산성우하이텍 이수승 과장의 풀코스 도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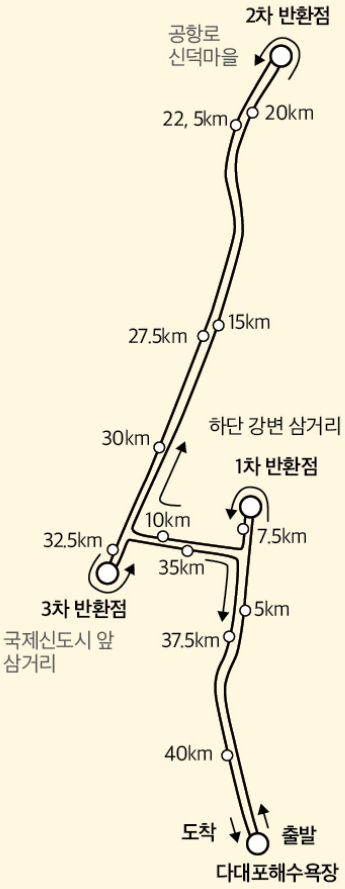
하프코스·풀코스에 도전한 성우인 22명 중
아산성우하이텍 이수승 과장에게 이번 대회는 특히 의미가 컸다.
풀코스 완주 5번에 이르는 이수승 과장은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풀코스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수승 과장의 마라톤 풀코스 도전기를 따라가 보자.

성우하이텍 덕분에 알게 된 마라톤의 매력

이수승 과장과 마라톤의 인연은 성우하이텍 덕에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KNN환경마라톤대회'를 후원해온 성우하이텍에 입사한 것이 계기가 된 것. 2006년 해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10킬로미터 코스를 달렸다. 이후 회사가 후원하는 대회에는 꼬박꼬박 참가하며 코스 하나하나를 밟아나갔다. 지금은 인도에서 근무 중인 강영진 부장이 좋은 연습 상대가 되어 주었다. 2년에 걸쳐 하프 코스를 6번 정도 완주한 뒤에는 마라토너들의 최종 목표인 풀코스에 도전했다. 파주에서 열리는 '평화통일마라톤'이 풀코스를 완주한 첫 대회이다.

이수승 과장이 말하는 마라톤의 매력은 무엇일까.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철근마냥 무거워지고 심장이 터질 듯한 괴로움까지 느끼면서 왜 매번 도전하는 것일까. 앞서 느꼈던 괴로움, 바로 그 순간 찾아오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는 괴로움에 비견할 바가 못 된다. 흔히 '하늘을 나는 기분' 혹은 '꽃밭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태는 한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체력을 컨트롤하여 완주하였다는 자신감과 성취감 역시 크다. 대회 참가를 위해 꾸준히 운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가 되고 오롯이 뛰는 데만 집중함으로써 '비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 그 효과가 일석사조 쯤 되지 않을까.

부산마라톤 풀코스



다시 한 번, 풀코스 완주!

대회가 열리기 전날 아산에서 내려온 이수승 과장은 아침 일찍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준비운동을 하며 연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긴장감은 감출 수 없다. 이번 대회는 사실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대회이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원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고향에서 열리는 유일한 풀코스 대회이기도 하여 덜컥 신청했는데, 지난 3년간 마라톤을 쉬었던 탓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춘천마라톤을 포함해 5번의 풀코스 완주 경험이 없었다면 쉽게 도전하지는 못했을 터. 헬스장에서 꾸준히 근력운동을 하고 하루에 4~5킬로미터씩은 달리는 연습을 했으니 그간의 노력에 기대어야 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5시간 안에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자 마음을 먹고 부담을 내려놓는다.

드디어 출발. 함께 뛰는 성우하이텍 동료들이 있어 몸도 마음도 가볍다. 다대포해수욕장과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그제야 시야에 꽉 찬다.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박동도 차츰 무거워지는 다리도 그저 반갑다. 완주 기록은 4시간 39분 28초. 계획한 기록은 무난히 통과다.

이수승 과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마라톤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해볼 생각이다. 한계에 부딪혀봄으로써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끔 하고 싶어서이다. 언젠가 꼭 참가하고 싶다는 대회의 모습은 좀 특별하다.

"꾸준히 기록을 세워서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샐러리맨이니 정장차림에 구두를 신고 서류가방까지 들고 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수한 품질이 곧 자긍심

성우하이텍핫스탬핑

2017년 10월 1일, 삼영핫스탬핑이 성우하이텍과 흡수합병을 알리며 '성우하이텍핫스탬핑'으로 새 출발하였다. 경주시 건천산업공단에 위치한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을 찾은 것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난 12월 초. "우수한 품질이 곧 자긍심"이라고 말하는 핫스탬핑 가족들의 열정은 겨울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다.

자동차 경량화의 KEY POINT 핫스탬핑

핫스탬핑은 철강 소재를 930℃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이렇게 생산된 철강은 인장강도(Tensile Strength)[1] 1500MPa 이상인 초고강력강이 되며 무게 역시 20~30% 가량 가벼워진다. 자동차 산업의 영원한 과제인 '안전하면서도 가벼운 차체'를 실현하는 핵심 과정이다. 성우하이텍은 2008년 스페인 게스탐프(Gestamp)사와 합작하여 '지에스핫스탬핑(GSH)'을 대구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핫스탬핑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1년 처음으로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하여 양산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 경주 건천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였다.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의 주 생산품은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루프 및 사이드 차체 부품이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YF소나타(2009년)에 적용하여 첫 선을 보였다. 향후 핫스탬핑 부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의 역할도 막중해질 것이다.

1 어떤 늘어나는 값에서 최대하중 M을 시험편의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나타낸다.

"자동화 라인 및
자체 요소 기술은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국내 핫스탬핑 업체 중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품질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핵심 기술입니다."

도전,
불량률 제로!

"우수한 품질이 곧 우리의 자긍심이자 자부심입니다."

성우하이텍핫스탬핑 직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우수한 품질 확보'이다. '불량률 제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 구성원이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TFT를 꾸려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응을 하고, 체계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영업, 보전, 생산, 개발, 품질 그룹의 담당자들은 매일 아침 QRQC (Quick Response Quality Control)를 통해 현장의 공정책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즉시 개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은 재료시험과 성형성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험·검사 설비를 마련하여 완성차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 중 유일하게 CQI-9(열처리시스템평가) 인증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내 핫스탬핑 업체들 중 불량률이 가장 낮은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위기에서 더 빛난 팀워크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1년여 간은 전 직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기간 동안, 대구에서 경주 건천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제품 생산도 함께 이루어냈다.

"공장이 제 모습을 채 갖추기도 전에 신차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본 설비만 겨우 갖추었던 상황에서 재고 확보, 설비 이전, 제품 생산, 품질 확보, 납기일 준수를 모두 완수해야 했어요."

전 직원이 눈코 뜰 새 없이 새 공장의 안정화에 매달리느라 하루하루가 전쟁터였다. 한 마음 한뜻으로 주인의식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다. 그 노력의 결실은 201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어려움을 극복한 직원들에게는 가족 같은 유대감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삼겹살데이, 체육대회, 해피데이(가족초대행사) 등 성우하이텍핫스탬핑만의 특별한 행사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규현 이사(핫스탬핑사업부장) 역시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소통에 힘쓰고 있다.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만들어나가는 미래

벌겋게 달아오른 철판이 1200톤의 프레스 안에서 쉼 없이 성형되고 있는 현장. 성형된 제품을 옮기는 과정과 홀(Hole)을 가공하는 과정에도 사람의 손이 필요치 않다.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이 자랑하는 자동화 라인이다.

"자동화 라인 및 자체 요소 기술은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국내 핫스탬핑 업체 중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품질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핵심 기술입니다."

품질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자동화 설비의 안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고, 끊임없는 오류 발견과 개선 과정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야 한다. 직원들의 매의 눈과 같은 관찰력과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지금의 최고 수준의 핫스탬핑 업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뜨거운 열기를 견뎌냄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핫스탬핑 제품처럼,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온 성우하이텍핫스탬핑.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성우하이텍핫스탬핑은 앞으로 세계적인 메이저 자동차회사들의 파트너로서도 손색없는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빠른 아이보다는 바른 아이로 자라길"

금형설계팀 최배승 과장 가족

최배승 과장은 2018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르다. 큰아들 지호(8)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입학 준비에 여념이 없는 최배승 과장·공상미 씨 부부와 지호 군을 만났다.

신나요~

이제부터는 저도 초등학생이에요!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문을 넘는다.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아래위로 앞니가 빠진 채 눈을 잔뜩 휘어 웃는 지호 군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취재진을 바라보는 정호(6) 군이다. 지난 1월 10일 초등학교 예비소집 후 본격적인 입학 준비로 한참인 부부는 지호가 올해 들어 부쩍 의젓해져, 동생인 정호 군을 챙긴다고 전했다. 동생 정호 군과 장난치는 지호 군에게 초등학교 입학 소감을 물었다. 앞니 빠진 얼굴에 또 다시 웃음이 떠오른다.

아빠와 지호의 연결고리

최배승 과장은 지호 군의 입학 통지서를 받아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지호 군이 입학하는 '해동초등학교'는 사실 최배승 과장의 모교이기도 한 것이다. 아들과 아빠가 30년 시간을 넘어 초등학교 선후배가 된 특별한 인연. 가슴 한 구석으로 퍼지는 뭉클한 감동은 겪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호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글을 깨쳤어요. 승부욕도, 하려는 의지도 강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호가 '빠른 아이'보다는 '바른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3단 합체!

눈웃음이 닮은 우리 가족~

멋이란 것이 폭발한다

지호에게 ~

마냥 어릴 것 같던 지호가 아빠와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후배가 된다고 하니 아빠 그 어느 때 보다 감동적이고 설레이기까지 한단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초등학교 생활을 해야 하니 걱정이 크겠지만 아빠 엄마가 늘 곁에서 응원해 주고 지호가 좋아하고 흥미가지는 것에 같이 관심을 가지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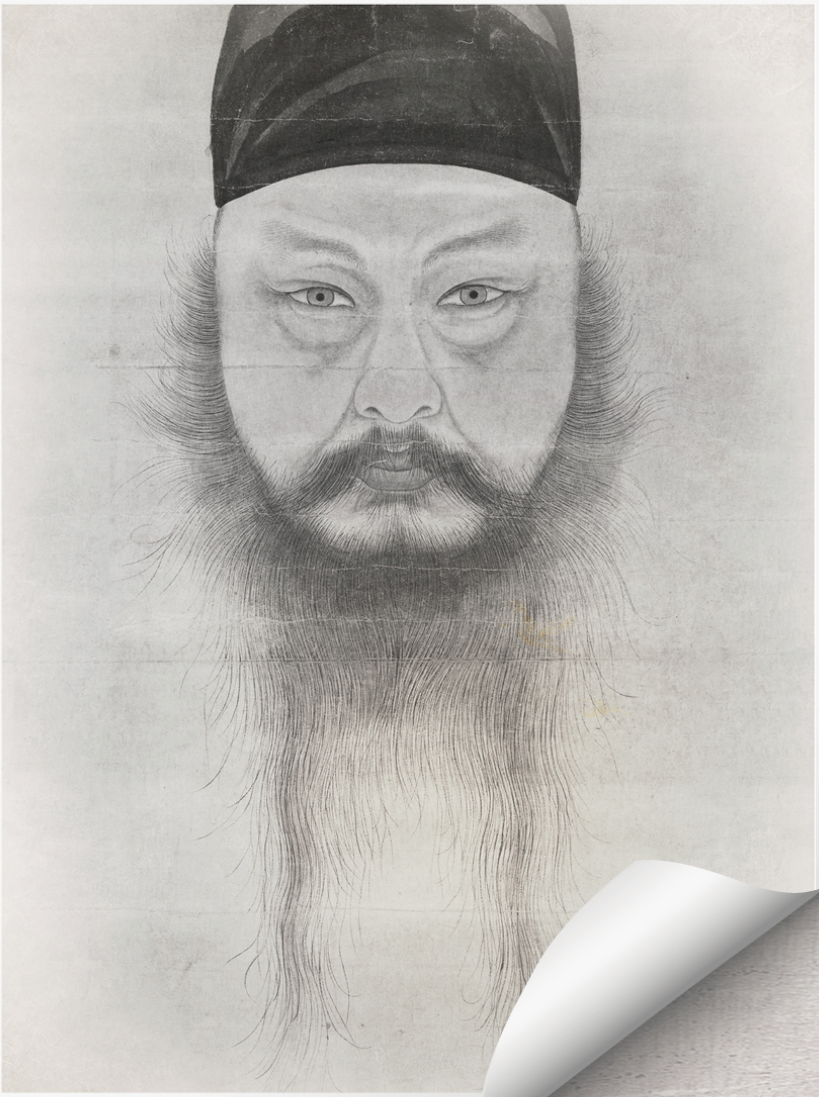
아빠 엄마는 빨리 하고 똑똑한 것보다 친구들과 경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며 재미있고 신나는 학교생활을 하는 바른 지호가 되었으면 한단다.

최박사~ 최지호. 잘 할 수 있을꺼야. 아빠 엄마 정호까지 응원한다. 화이팅!! 아빠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

아빠 엄마가 -

학부모는 처음이라

부부가 처음 만난 것은 2010년. 같은 해 결혼을 했고, 이듬해 첫아이인 지호를 얻기까지 일사천리였다. 허니문 베이비로 부부에게 온 지호와의 7년은 그야말로 행복 충만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이었다. 첫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설렘을 느끼다가도 왕따니, 학교폭력이니 하는 뉴스를 생각하면 걱정도 많다. 그런 최배승 과장에게 요즈음 특히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4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는 금형설계팀의 선배 학부모님들이다. '입학 전 준비물 챙기기'부터 '등교 지도하기', '스마트 폰 사주기에 적절한 시기', '생일 파티 팁' 등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보 제 240호, 얀두서 20.5㎝×38.5㎝
고산 윤선도유물전시관 소장
* 그림 출처 – 문화재청

尹斗緖自畫像

윤두서 자화상

『6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해(四海)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길게 나부끼고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사냥꾼이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저 기품은 돈독한 군자로서 부끄럼이 없구나.』
- 이하곤(李夏坤), 「윤효언자사조소진찬(尹孝彦自寫照小眞贊)」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매서운 눈초리에 압도된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얼굴을 떠받치는 무성한 수염은 한 올 한 올 생생하다.
안경자국과 주름, 콧속의 털끝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렸다.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이자 정약용의 외증조, 조선 후기 문인이며 화가인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시간과 성품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쟁에 밀려 벼슬에 들지 않았으며 부인과 형을 포함한 주위 사람 9명을 여의였던 윤두서의 삶.
삶을 뒤흔든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선비의 기품, 그럼에도 드러나는 고독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해학과 재치

팍팍한 삶을 위로하는 웃음의 미학

微笑

* 사진출처_ 국립경주박물관

천 년 전, 신라의 왕도(王都) 경주. 한 장인(匠人)이 공사장 바닥에 앉았다. 임금의 명으로 큰 절을 짓는 공사라고 하는데, 이 장인은 절 이름도 모른다. 그저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연일 이어지는 노역(勞役), 매서운 칼바람 속에 잠시 휴식을 취하던 장인에게 아직 덜 굳은 수막새[1]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수막새를 집어 들고 조물조물하던 것도 잠시, 투박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 피어난다.

장인도 함께 미소를 머금는다. 현실은 고되지만, 별 것 아닌 수막새 하나 보고도 웃음이 난다. 장인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그저 장난 삼아 만든 수막새가 천 년 뒤에 '새 천년의 미소[2]'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과서 표지도 되고, 각종 기념품 디자인으로도 쓰이고, 빵도 만들고, 레고로까지 탄생할 것을. 아니, 어쩌면 큰스님께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얼굴무늬수막새는 분명히 눈에 띄었을 텐데도 그 독특한 수막새를 만든 이의 마음을 보듬고, 그 해학과 재치를 이해하여 그대로 두었던 큰 마음에 감사할 일이다.

1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
2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새 천년의 미소'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사용
3 근정전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한 건물로, 경복궁의 중심. '근정(勤政)'은 정도전이 『서경(書經)』에서 가져온 말로 왕이 '부지런할 바'를 알아서 부지런히 정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져온 말이다. 정도전이 제시한 왕이 부지런할 바는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쉴 때 쉬는 것도 부지런함이라 하였다.
4 조선 후기 정조 시대 실학자. 『발해고』를 지어 발해를 우리 역사로 되찾아 왔다.
5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역할을 하였고 왕사를 지낸 조선의 승려
6 유홍준, 『국보순례』 中 '근정전 월대의 석견'편 참조
7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地境)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

餘裕

우여곡절 끝에 조선이 개국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을 창건했다. 이 경복궁 근정전(勤政殿)[3] 월대 모서리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돌짐승 조각이 있다. 이 석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유득공[4]은 『춘성유기』에서 '석견(石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석견은 암수 한 쌍인데 서로 몸은 밀착되어 있지만, 고개는 서로 홱 돌리고 있다. 왼쪽 석견은 새끼 한 마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한다. 무학대사[5]는 이 석견은 남쪽 왜구를 향해 짖는 것이고, 개가 늙으면 대를 이어가라고 새끼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는 하나 믿을 것은 못된다고 유득공은 전한다.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만조백관(滿朝百官)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엄숙한 장소인 근정전에 이처럼 해학적인 조각상을 허용한 여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6]

諧謔

양반집 뒷마당이 떠들썩하다. 보기만 해도 익살스러운 탈에, 내용을 들으면 점입가경(漸入佳境)[7]이라 폭소가 끊이질 않는다. 양반을 비꼬는 것은 기본이요, 희롱하는 것은 애교, 심지어 능멸하기까지…. 여기가 과연 양반집 뒷마당이 맞는지 듣던 귀를 의심하게 된다. 탈 쓰고 하는 말은 신의 말이라 어느 누구도 탈춤판에서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금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기는 금기일 뿐. 심사가 뒤틀린 양반이 곤장이라도 든다면? 그럼에도 뒤탈이 있었던 탈춤판 이야기는 없다. 군역도, 납세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 양반과 만연한 부정부패, 가혹한 수탈에 지친 백성이 함께 모인 양반집 뒷마당. 그곳에서 풍자와 해학이 묻어나는 탈놀이. 이 어색할 것 같은 조합이 전혀 이상스럽지 않다. 메마르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웃음이 넘치고, 푼푼한 여유가 느껴진다.

어렵다. 모두들 어려운 시대를 산다. 세계 평화는 요원하고,
국가 경제는 어렵고, 사회생활은 까칠하고, 집안 살림은 헐빈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다.
어쩌면 우주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너나없이 어려운 시대에 있는 힘껏 주름지어 웃는 얼굴 만들어 보자.
힘겨운 노역 속에서도, 엄숙한 공간에서도, 팍팍한 삶 속에서도 미소와 여유는 피어났으니~

스크린에서 되살아난

그때 그 얼굴들

지난 연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다.
박종철 열사와 그를 죽음으로 몬 국가 권력자,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던 기자와 수많은 민주인사 등
다양한 실존인물들과 그들을 연기한 배우들을 비교해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였다.
영화 속에서 되살아난 그때 그 얼굴들, 그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 사진출처_ 네이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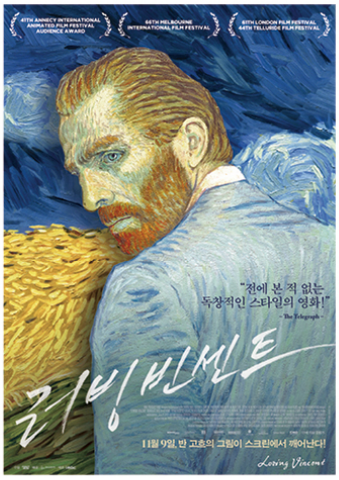
어제와 오늘을 잇다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전 국민이 분노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정부의 사망 발표 내용이다. 어이없으리만치 뻔뻔한 이러한 행태는 들끓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정의를 외면해야 했던 엄혹한 시절. 그때에도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한, 두려움에 앞서 사회정의를 외쳤던 이들은 있었다. 박종철의 시신을 검안했던 내과의사 오연상 씨(이현균 분), 시신 화장의 강요를 이기고 부검 결정을 내렸던 최환 검사(하정우 분), 고문 의혹을 보도했던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이희준 분) 등 언론인, 영등포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진실을 외부로 알리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 한재동 교도관(유해진 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도왔던 수많은 재야 민주 인사들 등 영화 <1987>로 되살아난 이들이다.
민중을 탄압했던 국가 권력자들과 그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상반된 삶을 비교해보면 재미는 더해진다. 대표적 민주인사인 문익환 목사의 아들 배우 문성근 씨가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이한열 열사의 동문이며 그의 노제를 이끌었던 우현 씨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후배인 김윤석 씨가 사건의 배후에 섰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연기한 것. 배역의 경중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배우들에게 이 영화는 특별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임팩트 강한 스토리와 명배우들의 혼신의 열연, 그보다 더 뜨거웠던 30년 전의 민주화를 갈망하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보는 내내 우리 가슴을 저리게 한다.

유화 6만여 점으로 그려낸 빈센트 반 고흐

총 제작기간 10년, 투입된 아티스트 107명, 62,450점의 프레임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 빈센트 반 고흐 권총 자살의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 <러빙 빈센트Loving Vincent>는 이처럼 전술한 설명부터 예사롭지 않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과 달리, 배우들이 연기한 각각의 신(scene)을 고흐의 화법을 빌려 그려낸 '유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2년에 걸쳐 고흐의 그림체를 복제해낸 아티스트들의 정성도 대단하다. 감독의 참신한 발상과 기꺼이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열정 덕분에 관객들은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생생히 살아 일렁이는 거장의 작품 130점을 만날 수 있었다.

오프닝을 장식한 <별이 빛나는 밤>을 시작으로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 <오베르의 평원>, <까마귀가 있는 밀밭>, <아니에르의 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전망대> 같은 고흐의 대표 풍경화를 찾아내는 재미에 더하여, 빈센트와 테오 형제의 편지를 전했던 우체부 조셉 룰랭(<우체부 조셉 룰랭의 초상>)과 빈센트를 후원했던 미술 재료상인 탕기 영감(<탕기 영감의 초상>), 빈센트가 죽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라부 여관의 주인집 딸 아들린 라부(<라부 양의 초상>), 빈센트를 그리워하는 여인 마르그리트(<피아노에 앉은 가셰의 딸>), 빈센트의 후원자이자 의사인 폴 가셰(<가셰 박사의 초상>) 등 그의 작품을 통해 익숙해진 실존인물들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그림으로만 보아오던 인물들이 말을 하고, 걸음을 옮기고, 슬픔에 젖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내내, 그들이 묘사하는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진면목을 만나는 순간순간, <자화상> 속 빈센트가 스크린을 넘어 눈을 맞추어오는 순간, 뭉클함이 가슴 가득히 퍼져나간다.



러빙 빈센트

아임 낫 데어

한 스크린에서 만나는 7명의 밥 딜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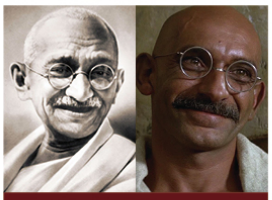
실존인물을 다룬 영화는 그 인물을 어떤 시선으로 조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 그런 의미에서 6명의 배우가 한 인물을 연기한 영화 <아임 낫 데어I'm Not There>는 특별하다. 토드 헤인즈 감독은 한 인물을 전혀 다른 7가지 자아로 나누어 보여준다. 나이와 외모, 인종, 심지어 성별의 벽까지 허물어 묘사하는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인 밥 딜런(Bob Dylan)이다.

흑백과 컬러가 교차하는 화면 구성, 시간 흐름과 상관없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음유시인, 영화배우, 저항가수, 은둔자, 가스펠 가수, 로커 등 각기 다른 인물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화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영화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밥 딜런이란 인물 자체가 결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예술가이지 않은가. 이에 토드 헤인즈 감독은 밥 딜런을 7개의 자아로 나누었다. 시인 랭보를 떠올리게 하는 아서(벤 위쇼 분), 11살 음유시인 우디(마커스 칼 프랭클린 분), 가스펠을 부르는 존과 반전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잭(크리스찬 베일 분), 영화배우 로비(히스 레저 분), 세상의 시선에 맞서는 로커 쥬드(케이트 블란쳇 분), 은둔자 빌리(리처드 기어 분)가 그들이다. 실제로 밥 딜런은 포크 음악의 부흥을 일으킨 음유시인이자 포크록이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으로 비판받은 배신자, 반전운동가, 대중문화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임에도 시상식에 불참한 이력 등 데뷔 후 줄곧 독특한 행적을 보이며 대중의 애정과 지탄을 동시에 받아왔다. 이런 생의 궤적을 생각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화 속 7명의 주인공이 하나로 모아질 때야 비로소 진짜 '밥 딜런'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아임 낫 데어>는 일찍이 밥 딜런의 골수팬이라 밝힌 감독이 자신의 뮤즈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영화가 아닐까.

<아임 낫 데어>의 케이트 블란쳇은 성별의 한계를 딛고 대사, 몸짓, 표정을 통해 밥 딜런 그 자체가 되어 "싱크로율* 100%!" 찬사를 받으며 제65회 골든글로브·제42회 전미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케이트 블란쳇처럼 최고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전기 영화 속 실존인물-배우는 누가 있을까?

아임 낫 데어
밥 딜런 - 케이트 블란쳇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 메릴 스트립



간디
마하트마 간디 - 벤 킹슬리

다키스트 아워
윈스턴 처칠 - 게리 올드만

*싱크로율_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남 없이 같거나 들어맞는 비율

올림픽의 얼굴, 마스코트 이야기

지난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19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올림픽의 얼굴,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이다.

이미지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www.olympic.org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www.pyeongchang2018.com/ko

별별 올림픽 마스코트

올림픽 마스코트는 올림픽의 성공과 대회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만드는 행운의 상징물이다.
마스코트를 처음으로 선보인 대회는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올림픽.
스키를 탄 사람을 형상화한 '슈스'가 그 주인공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마스코트는 아니었다.
공식적인 첫 마스코트를 비롯해 역대 독특한 이력의 마스코트들을 소개한다.

유일한 사람 마스코트
1994년 릴레함메르 '하콘', '크리스틴'

스키를 탄 사람을 형상화한 마스코트
1968년 그레노블 '슈스'

동물이 아닌 첫 마스코트
1992년 알베르빌 '마지끄'

공식적인 첫 올림픽 마스코트
1972년 뮌헨 '발디'

TV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마스코트
1980년 모스크바 '미샤'

첫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마스코트
1996년 애틀랜타 '이지'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제 24회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는 우리에게 특별하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자 동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념 분쟁을 극복한 평화의 올림픽으로서 서울올림픽은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다. 호돌이를 디자인한 김현 디자이너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을 잘 표현하는 동물인 호랑이를 선택했다. 결과는 대 만족. 상모를 쓴 이 친근한 호랑이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호돌이는 예술적 측면과 친근성 등을 기준으로 뽑은 역대 마스코트 '베스트 5' 중 3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

평창의 얼굴 수호랑&반다비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 후, 사람들의 관심은 호돌이의 뒤를 이을 새로운 마스코트의 탄생으로 모아졌다. 까치, 곰, 진돗개 등 다양한 후보군 중 최종 낙점된 것은 백호 '수호랑'과 반달곰 '반다비'이다. 수호랑과 반다비는 올림픽 15종목을 상징하는 배지와 마그넷, 열쇠고리 등 기념품뿐만 아니라 나노블록, 무드등, 텀블러, 머그잔, 수건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호랑(Soohorang)

하얀 눈을 닮은 백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수호(Sooho)와 호랑이·강원도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랑(rang)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호돌이'의 정서를 잇는 한편, 30년간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반다비(Bandabi)

강원도 일대의 천연기념물 반달곰. 반달을 의미하는 반다(Banda)와 대회를 기념하는 의미의 비(Bi)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얼굴이 말하는
당신의 인생

관상을 보다

관상은 얼굴상을 보고 운명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점법(占法)이다. 무술년 새해, 성우인들의 얼굴은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을까. 얼굴에 담긴 비밀이 궁금하다면 주목하자.

이목구비

눈 가는 듯 길고 양쪽 눈의 길이가 같으며 튀어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은 눈을 최고로 친다. 이런 눈에 성공운이 들며, 운도 잘 따른다. 동공은 작고 뚜렷할수록, 맑고 수려하며 흑백이 분명할수록 좋다. 눈 밑이 도톰하면 자손이 많고, 가로로 살짝 긴 눈매는 '봉황상'으로 귀하게 될 인물이다.

눈썹 길수록 총명하며 운과 복이 많다고 여겨진다. 눈썹이 높게 위치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장수하는 상으로 본다.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은 손가락 2개 정도의 간격이 좋으며 미간부터 코끝까지 맑고 깨끗한 사람은 매사에 운이 좋다고 여긴다.

코 코는 얼굴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한다. 비뚤어지지 않고 단단하며 높게 쭉 뻗은 콧대를 좋게 본다. 둥글고 볼륨감이 있으면 좋으나 콧구멍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콧방울이 둥글고 두툼하면 '현담비'라 하여 재물운이 있는 상으로 본다.

입 입은 클수록 좋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윗사람의 덕을 크게 보게 될 상으로 재물운이 따른다고 본다. 입술은 두툼해 보일수록 복덕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윤곽이 또렷할수록 좋다.

귀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부위다. 뚜렷한 모양에 단정하고 곧은 귀가 좋다. 특히 두툼하고 길게 내려온 귓불은 부귀영화를 누릴 상으로 본다. 귀문이 넓으면 총명하다고 보며 높이 솟고 긴 귀는 장수를 상징한다.

얼굴형

긴 얼굴형 세심하고 지적인 느낌을 풍기는 상. 의욕과 독립심이 강해 어떤 일도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내력이 강한 특징을 보이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둥근 얼굴형 성격이 무난해 대인관계에 유리한 얼굴형이다. 성격 역시 얼굴처럼 둥글둥글하고 시원하여 사람을 상대하는 데 능하다. 인내력이 약한 편이다.

달걀형 온화하면서 편안한 인상을 주는 미남미녀상. 논리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명석하다. 청년기를 지나 말년으로 갈수록 운이 상승한다.

사각형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끈기와 의지력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이런 성격적 특성 때문에 가끔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역삼각형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주지만 잔꾀 부릴 줄 모르는 진지하고 우직한 성격을 지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도자의 품격이 나타난다.

주걱턱형 선이 굵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대인관계 폭이 넓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 어떤 직업이든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유형이다.

광대 돌출형 자유로운 성격에 창의력이 풍부하다. 한 가지 일에 빠져서 성공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약하려는 특징을 지녔다.

얼굴형과 이목구비별 관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관상이란 세월이 지나며, 또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니 참고만 할 것. 중요한 것은 마음의 형상, 즉 심상(心象)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Let's go 하면 성우인의 얼굴 모습도, 무술년 운세도 만복(萬福) 가득하지 않을까.

소중한 얼굴, 자랑스러운 얼굴,
그리고 성우의 역사가 될 얼굴들.

우리는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전사가 한마음으로 안.전.제.일 安全第一 성우!

"안전제일(安全第一)"

어디서나 눈에 띄는 표어! 누구나 '안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제일'이라는 단어를 찾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어색하다. '최고'라는 말도, '중요'라는 말도 있는데, 왜 '제일(第一)'일까? 그러면 '제이(第二), 제삼(第三)'은 무엇일까? 웬 실없는 말장난이냐고? 이건 실없는 말장난이 아니다. '안전제일'은 단순한 안전표어가 아닌 경영방침에서 시작된 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100년도 더 된 일이다.

1906년, 미국의 세계적인 철강회사 U.S.Steel의 E. H. Gary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의 경영방침은 "생산제일, 품질제이, 안전제삼(生産第一, 品質第二, 安全第三)"이었다. 말 그대로 "먼저 생산을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품질을 생각한다. 이것이 다 되면 안전을 생각한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경영방침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장 먼저 재해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다음으로, 불량이 다발하고 품질이 저하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일'이어야 할 생산이 산업재해와 불량에 의해 곤두박질쳐버린 것이었다.

Gary 회장은 고심 끝에 경영방침의 순서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安全第一, 品質第二, 生産第三)"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장의 배열, 기계배치의 질서 유지, Go/Stop 표지 설치, 모든 기호를 여러 나라 말로 표시, 기계 안전장치 설치, 공장 내 조명 개선 및 청결 유지 등 작업장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고, 작업장이 정비되어 품질도 향상되었으며, 나아가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Gary 회장의 실천적 결과는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서 1912년, 시카고에 국민안전협회가 창립되었고, 1917년에는 런던에 안전제일협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안전제일"은 경영방침이자 경영철학으로 출발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스쳐 지나가는 표어로만 취급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움을 떨쳐내기 위해 성우하이텍에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출근시간에 「안전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각 사업장 정문에서 안전관리자, 팀(반)별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안전한 성우하이텍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One Point Lesson'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2018년부터는 「정기 안전조례」를 마련한다. 2개월마다 진행될 「정기 안전조례」를 통해 직원들이 함께 회사의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기존의 「안전캠페인」과 교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한 성우하이텍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전제일(安全第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성우하이텍의 노력은 2018년에도 계속된다.

QR코드로 '안전구호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은 너

"이 단어, 실화냐?"

지난해, 케이블 TV프로그램 <SNL 코리아>는 급식체를 주제로 방송을 내보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ㅇㅈ?' 'ㅇㅇㅈ!' '~할 각?' 등 외계어도 외국어도 아닌 단어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우리말은 분명한데 뜻을 알 수 없는 말들. '급식체'라고 불리는 이 말들을 파헤쳐보자.

급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식체'가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할 터. 급식체란 급식을 먹는 이들, 즉 초·중·고생인 10대들이 SNS에서 주로 쓰는 언어를 말한다. 크게 줄임말과 야민정음으로 대표된다.

줄임말 형태

가장 흔히 쓰이는 급식체의 한 형태로, 긴 단어를 짧게 줄여 쓰는 기본형과 초성만 사용하는 형태가 있다. 초성만 쓰는 경우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자주 쓰는 줄임말 형태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 ㅇㅈ → '인정'의 줄임말. ㅇㅈ? 어 ㅇㅈ(인정, 어 인정_자문자답)
- ㄹㅇ → '진짜'의 영어 표현 '리얼'의 변형형인 '레알'의 줄임형
- ㄱㅇㄷ → '개이득'의 줄임말로 생각지 못한 이득, 획득을 의미
- 취존 → '취향 존중'의 줄임말로 각자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
- 마상 → '마음에 상처를 입다'의 줄임말
- 할말하않 →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
- 사바사 → '사람 by 사람'의 줄임말로 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경우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의미. 비슷한 의미로 '케바케(case by case)'가 있다.
- 세젤예 →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의 줄임말
- 시강 → '시선 강탈'의 줄임말. 시선을 강탈할 정도로 눈에 띄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 영고 → '영원히 고통을 겪다'의 줄임말

야민정음 형태

야민정음은 야구 관련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언어 형태로, '훈민정음'에서 이름을 따왔다. 단어와 단어를 섞어 쓰는 형태인데, 영어와 국어가 합성된 형태나 국어 단어 자체를 새롭게 해석한 형태가 있다. 현재 1020세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언어표현 방식이다.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고'의 '빼박'과 '하지 못한다'의 영어 표현 캔트(can't) 합성. 빼도 박도 못하는 틀림없는 사실을 일컫는다.

~각

'내가 예상컨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의미.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물음이나 확신 시 쓴다.

실화

'그거 진짜냐', '정말이냐'라는 뜻을 재미있게 써서 표현한 말

댕댕이

강아지, 개를 뜻하는 '멍멍이'를 다르게 쓴 것. 멀리서 보면 '멍멍이'로 보인다.

커엽

'귀엽다'라는 뜻의 '귀엽'을 다르게 쓴 것. 멀리서 보면 '귀엽'으로 보인다.

갓띵작

갓(god, 신이라는 뜻)+띵작(멀리서 보면 '명작'으로 보임)으로, 신이 내린 명작이라는 의미다.

활용형

아빠: 아들~ 오늘 야자 실화냐?
아들: ㅇㅇ. 빼박캔트.

오늘 저녁, 다정하게 급식체 한번 써보자.
"딸~ 아빠 눈엔 네가 세젤예."
"헐~~~"
아빠가 조금 우스워진들 어떠리? 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오른다면….

"않되는 안 돼~"

쉽게 틀리는 맞춤법

다음의 예시문을 살펴보자. 잘못된 곳은 몇 군데일까?

그		일	은		독	단	적	으	로		처	리	하	면		않	됬	어	요	.		책	임	자	로	써
틀	린		생	각	도		받	아	주	는		게		방	법	이	예	요	.							

- **안/않 :**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다)'은 '아니하(다)'의 준말이다.
  하지~ 뒤에 쓰일 땐 '않', 하다(동사) 앞에 오면 '안'을 쓴다. / '않'의 유무로 구별 가능하다.
  ex) 내가 하지 않았어/내가 하지 았어('않'을 쓰지 않으면 말이 안 됨)
  내가 안 했어/내가 했어('않'을 쓰지 않아도 말이 됨)

- **돼/되 :** 어간 '되-' 뒤에 어미 '-어'가 붙으면, '되어'와 같이 활용하며, 이것이 줄어든 형태가 '돼'이다.
  '돼=해', '되=하'를 넣어 구분할 수 있다.
  ex) 안 돼요⋯→안 해요(의미 통함) / 안 되요⋯→안 하요(의미 통하지 않음)
  ex) 안 돼다⋯→안 해다(의미 통하지 않음) / 안 되다⋯→안 하다(의미 통함)

- **로서 :** 자격, 신분 등을 나타낼 때 ex) 팀장으로서 할 일이 있다.
- **로써 :** 근거, 수단을 뜻할 때 ex) 달리기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 **틀리다 :**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의미로 쓸 때 ex) 3번 답은 틀렸어요.
- **다르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ex)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 **이에요/예요 :**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쓴다.
  ex) 그건 사탕이에요. / 그건 케이크예요.

예시문의 제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그		일	은		독	단	적	으	로		처	리	하	면		안	✓	됐	어	요	.			
책	임	자	로	서		다	른		생	각	도		받	아	주	는		게		방	법			
이	에	요	.																					

비즈니스 관계에서 맞춤법을 잘못 쓴다면 어떨까.
업무 보고 시, 혹은 데이트 상대에게서 받은 메시지의 맞춤법이 엉망이라면?
한 데이트 업체의 조사 결과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말투가 상대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 2위에 랭크되었다.
가깝고 편한 관계에서 쓰는 유쾌한 언어유희와 별개로 제대로 알고 써야 할 맞춤법쯤은 알아두자.

또 다른 예시문을 살펴보자. 잘못된 곳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을까.

왠		감	기	가		몇	일	째		안		낳	는	지	.		피	곤	이		쌓	였	데	요	.	
오	늘	이	던		내	일	이	던		다	시		병	원	에		가	볼	께	요	.					
2	0	1	8	.	2	.	1	2																		

- **왠 :** 이유를 모르게, 혹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일 때 ex) 오늘은 왠지 기분이 별로야.
- **웬 :** '어찌된', '어떠한'을 의미. 의외의 뜻을 나타내고 싶을 때 ex) 여기엔 웬 일이야?

- **며칠/몇일 :** 흔히 '몇+일'로 분석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며칠'로 쓴다.

- **낫다 :** '병이나 상처가 없어지다'는 의미 ex) 감기는 다 나았니?
- **낳다 :** '배 속의 아이, 또는 새끼나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는 의미 ex) 아기는 언제 낳아요?

- **데 :** 말하는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듯이 말할 때 ex) 내가 먹어보니 정말 그렇데.
- **대 :**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ex) 의사 말이 감기에는 귤이 좋대.

- **던:** 지난 일을 회상할 때 ex) 지난 가을에는 감이 잘 익었던데.
- **든:** 선택의 결과가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음을 나타낼 때 ex) 귤이든 감이든 다 좋아.

- **게 :** 문장의 끝이나 단어 조사로서 사용 ex) 부모님께 가 볼게.
- **께 :** 공손함을 나타내는 조사 ex) 부모님께 가봐.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문장부호 표기법'에 따라 '연, 월, 일' 뒤에 모두 마침표를 찍어준다.
  ex) 2018. 2. 9.

예시문의 제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웬		감	기	가		며	칠	째		안		낫	는	지	.		피	곤	이							
쌓	였	대	요	.		오	늘	이	든		내	일	이	든		병	원	에								
가	볼	게	요	.	2	0	1	8	.	2	.	1	2	.												

GWANGALLI EOBANG FESTIVAL

Bucket Festival List

봄날의 축제 속으로

"여행~ 일요일 그리고 출근."
여행은 그곳의 삶을 들여다보고 느껴보게 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든다.
하지만 직장인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짧고 굵게 여행지의 전통과 삶을 체험토록
하는 다채로운 지역 축제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따사로운 봄날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
3~5월에 꼭 가야 할
버킷 '페스티벌' 리스트를 소개한다.

광안리어방축제

현종 11년, '성(城)에 어방(漁坊)을 두고 어업기술을 지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놀이로 구성한 것이 '좌수영어방놀이'로, 축제명의 유래가 되었다. 축제에서는 좌수영어방놀이를 재현한 '어방그물끌기한마당', '어방의 탄생' 과정을 담은 뮤지컬 공연, 관람객이 함께하는 '대형 후릿그물끌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실제로 그물에 크고 작은 고기가 잡혀 올라온다.
'어방수라간'에서는 전담 활어전문요리사가 요리를 장만해준다. 대회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은 하나가 되어 눈과 입이 즐겁다. 그 외 경상좌수사행렬, 어방민속마을, 수문장교대식 등 30여 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기간 2018. 4. 27.(금) ~ 4. 29.(일) ▶ 3일간
장소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구청 문화공보과 ☎051-610-4061~5
광안리어방축제(수영구 축제위원회)
http://www.suyeong.go.kr/eobang

원동매화축제

봄날 꽃놀이가 빠질 수 있나. 매해 3월경, 원동 일대는 매화가 지천으로 만발하여 수려한 경관을 연출한다. 경전선 철도 옆 낙동강변의 경치와 어우러진 '순매원' 수백 그루 매화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간이역의 소박한 정취를 품은 원동역도 추천할 만하다.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면 누구나 소설의 주인공이 된다. 주변의 신흥사 대광전, 가야진사, 가야진 용신제, 임경대, 배내골, 선장골 등 자연문화유산도 찾아볼 만하다. 기차여행도 좋겠다.

기간 2018. 3. 17.(토) ~ 3. 18.(일) ▶ 2일간
장소 원동교 특설무대 & 쌍포매실다목적광장
원동매화축제추진위원회 ☎055-392-2547
http://www.yangsanfes.com/

WONDONG APRICOT FLOWER FESTIVAL

담양대나무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평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축제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2년 연속(2017~18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대나무의 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둔 대나무 환경 퍼레이드,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 대나무 어린이놀이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담양천 옆 가로수길과 이어진 관방제림에서 열리는 버스킹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은 '담양'이라 불린 지 1,000년째 되는 해라 방문의 의미가 더해진다. 갖가지 특별한 행사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기간 2018. 5. 2.(수) ~ 5. 7.(월) ▶ 6일간
장소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예정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061-380-3150~3152
http://www.bamboofestival.co.kr/

DAMYANG BAMBOO FESTIVAL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수천 년 전 홍해는 모세의 기적으로 바닷길이 열렸다. 진도는 지금도 뽕 할머니의 전설과 함께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 옛날 '호동(지금의 회동마을)'에는 호랑이의 출몰이 잦았다. 사람들은 바다 건너 모도로 피했지만 뽕 할머니만 홀로 남겨졌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뽕 할머니는 매일 용왕님께 기원했다. 정성이 통해서였을까? 회동과 모도의 뿔치 사이에 바닷길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기쁘게 그 길을 통해 돌아왔다.

이후 해마다 이곳에서 기원제를 지내고 열린 바닷길에서 바지락, 낙지 등을 잡으며 하루를 즐겼다. 풍습은 축제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직접 바닷길을 체험해보면 그 신비로움이 비할 데가 없다. 1975년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 씨가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기간 2018. 5. 16.(수) ~ 5. 19.(토) ▶ 4일간
장소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진도군 문화관광과 ☎061-540-3407
http://tour.jindo.go.kr/

MUNGYEONG TRADITIONAL CHASABAL FESTIVAL

문경전통찻사발축제

한류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7년 대한민국 한류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한 축제로 6회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행사 기간 내내 외국관광객이 붐빈다. 시는 축제를 통해 전통도자문화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문경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이다.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처럼 연인과 함께 발 물레를 돌리며 찻사발을 빚는 체험은 어떨까. 전통을 배우며 추억도 쌓여간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도 많다.

찻사발(茶碗)이란 차를 마시는 사발 또는 주발이다. 사발은 흔히 소우주라고 부른다. 소우주에 담긴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마음으로 찻사발을 들어보자.

기간 2018. 4. 28.(토) ~ 5. 7.(월) ▶ 10일간
장소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찻사발축제위원회 ☎054- 550-6395
http://www.sabal21.com/

기장멸치축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봄 멸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멸치 털기, 맨손 활어잡기, 미역채취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풍성한 축제이다.

하이라이트는 '멸치 털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입 벌린 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다. 어부들이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춰 그물을 털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은빛 멸치가 튀어 오른다. 이색적인 풍경이 사진애호가들의 카메라에 다이나믹하게 담긴다. 다만, 렌즈 필터에도 멸치 눈알과 비늘 등 파편이 다이나믹하게 묻어나니 기억해 둘 것. 행사장 인근에는 지중해 느낌의 죽성드림 세트장을 비롯해 관광명소가 많다.

기간 5월경 예정
장소 기장읍 대변항 일원
기장군청 ☎051-709-4000
http://www.gijang.go.kr/tour/index.gijang

GIJANG ANCHOVY FESTIVAL

2018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육성축제 |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표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최우수축제 | 강진청자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우수축제 |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이밖에 유망축제로는 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등 20여 개가 있고, 강릉커피축제, 굿모닝! 양림, 단양온달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어 등 육성축제 40여 개가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

매너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Manner Makes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회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성우인이라면 각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쯤은 익혀두자.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매너가 성우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 키워드 #1 꽌시

중국인들은 '꽌시(관계)'를 중시한다. 관계를 어떻게 쌓느냐가 비즈니스 성패를 가르는데, '꽌시'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서로 왕래하고 작은 데서부터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꽌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첫 만남부터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꾸준함과 진중함으로 승부를 볼 것!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오랜 기간 변치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첫 만남 시 주의할 팁을 참고하여 관계를 잘 쌓아가도록 하자.

- 약속을 잡을 때 — 4대 명절인 춘절(음력 1.1.), 청명절(음력 4.5.), 단오절(음력 5.5.), 중추절(음력 8.15.) 및 노동절(양력 5.1.), 국경절(양력 10.1.) 전후의 연휴는 피한다.
- 명함을 주고받을 때 — 명함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아주 큰 실례다. 반드시 지갑에 넣는다.
- 상대를 부를 때 — 성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 키워드 #2 술자리/접대

'우지우부청시(无酒不成席, 술이 없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손님 접대 시, 혹은 비즈니스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자리 매너를 중시하고 우리와 다른 점도 많으니 알아두자.

- 건배 제의는 초대한 사람이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
- 건배 시 단번에 술을 마셔야 하며, 술을 주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함께 마신다.
- 술은 잔에 가득 차도록 채우며 우리나라와 달리 잔을 돌리지 않는다.
- 중국인은 풍성하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여 술이나 물도 따듯하게 마시는 경우 많다. 접대 시 찬 음식은 피한다.
- 준비된 음식에는 적어도 한 번씩 손을 댄다. 다만 각 음식은 조금씩 남긴다.
- 식사가 끝났다는 표시로 젓가락을 반드시 젓가락 받침대 위에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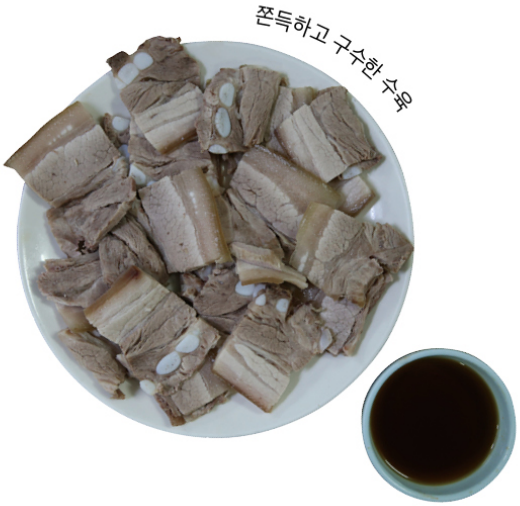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 키워드 #3 선물

비즈니스 관계에서 종종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너무 비싼 선물은 피하고, 중국인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색, 숫자를 알아두었다가 선물할 때 호감을 쌓도록 한다.

- 선호하는 선물 차나 전통주, 특산품
- 피해야 할 선물 죽음, 이별과 발음이 유사한 탁상시계, 배, 우산, 부채는 반드시 피한다.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풀어보지 않는다.
- 좋아하는 색 **붉은색** _ '행복', '상서로움'과 '생명력'을 상징하여 신부의 전통결혼예복, 축의금, 세뱃돈 봉투에 쓴다.
- 싫어하는 색 **흰색** _ 중국에서 흰색은 '죽음'을 의미하여 흰 봉투는 부의금을 낼 때만 쓴다.
  선물 포장할 때나 축의금 전달 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좋아하는 숫자
  - **8팔(八), [bā, 빠]** 发财[fā cái](큰돈을 벌다)의 发[fā]와 발음이 비슷하여 행운으로 여긴다. 과일 등을 선물할 때 8개를 맞추어 준다.
  - **6(六), [liù, 리우]** 流利[liúlì](만사가 순조롭다)의 流[liú]와 발음이 비슷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여긴다.
  - **9(九)[jiǔ, 지우]** 天長地久(영원하다, 장수하다)의 久[jiǔ]와 발음이 같아서 황제의 숫자, 길한 숫자로 여긴다.
- 싫어하는 숫자
  - **4(四), [sì, 쓰]** 死[sǐ](죽다)와 발음이 비슷해 불길하게 여긴다.
  - **7(七), [qī, 치]** 生气[shēngqì](화를 내다)의 气[qì]와 발음이 비슷해 화를 부른다고 여긴다.
  - **3(三), [sān, 싼]** 散[sǎn](흩어지다)과 발음이 비슷해 재물이 흩어진다고 여긴다.

정성으로 끓여내는 진하고 뜨끈한 한 그릇

육수를 우려내는 열기로 식당이 훈훈하다.
훈기 가득한 국밥집을 들어서려니 기대는 배가 된다.
그릇째 들고 국물을 한입에 털어 넣고 나면 누구나 만족감에 깊은 탄성을 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지역별 대표 국밥을 소개한다.


쫀득하고 구수한 수육

고춧가루 양념 파김치(부추)

전쟁의 상흔을 달래다
부산 돼지국밥

야성을 연마하려고 돼지국밥을 먹으러 간다
그것도 모자라 정구지 마늘 양파 새우젓이 있다
홀로 돼지국밥을 먹는 이마에서 야성은 빛나다.

야성은 빛나다-최영철

용호동의 합천돼지국밥

돼지국밥은 부산을 대표한다. 돼지 뼈로 우려낸 육수에 고기와 밥을 말거나 따로 내놓는 식이다. 6·25 전쟁 이후 그나마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설렁탕을 흉내 낸 것이 지금의 돼지국밥으로 발전한 것이라 추측된다. 전쟁이 남긴 상흔에는 추위와 배고픔이 있었다. 돼지국밥은 그러한 시대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투박하지만 여러 말 없이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부성 같은 음식이었다. 허영만은 만화 『식객』에서 "소 사골로 끓인 설렁탕이 잘 닦여진 길을 가는 모범생 같다면, 돼지국밥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반항아 같은 맛이다"라고 하였다. 돼지국밥 애호가인 부산의 최영철 시인은 "돼지국밥을 먹으면 숨어 있던 야성이 깨어난다"고 했다. 진한 육수에는 풍부한 철분 및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담겼다. 피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콜라겐 성분 덕분에 남녀노소 즐겨 찾는다. 범일동, 서면 등에는 '돼지국밥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굴요리전문점 영빈관 굴국밥

영양만점 겨울 보양식

통영 굴국밥

굴국밥은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을 주재료로 하되 미역, 무, 양파, 멸치, 버섯 등 각종 재료를 더하여 만드는 음식으로 흔히 해장국이나 보양식으로 여긴다. 굴국밥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은 단연 경남 통영이다. 통영은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굴 생산지로, 제철인 1월~3월이면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최상의 굴로 만든 요리들을 즐길 수 있다. 굴은 단백질과 지방, 회분, 글리코겐 등의 영양소와 칼슘과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과 필수아미노산 함유량도 높다. 조직이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돼 노약자에게도 권할 영양식이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어 남성에게 특히 좋다는 사실! 카사노바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즐겨 먹었다고 한다.

굴전

해장하는 신라의 달밤

경주 모자반해장국밥

모자반해장국밥은 오직 경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해장국이다. 가마솥에 갖은 재료를 넣고 3시간 정도 끓여 만드는 맑고 시원한 육수도, 야채·콩나물·신 김치를 베이스로 메밀묵과 모자반(해초)이 꼭 들어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덕분에 국물이 기름지지 않고 시원하여 입맛이 껄끄러운 아침에도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수십 년 모자반해장국밥을 끓여낸 어느 가게 주인은 "메밀묵과 모자반은 주독을 다스려주는 데 최고"라고 귀띔한다. 식당의 구조도 국밥만큼이나 이색적이다. 입구 앞에 있는 주방에서 주인이 국밥재료들을 만지며 인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맛은 여러 국밥집이 대동소이하다. 시원한 국밥으로 한 끼를 해결한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대릉원을 둘러보고 요즘 경주에서 가장 핫하다는 황리단길에서 커피도 즐길 수 있다.

따로국밥으로 나오는 모자반해장국밥

성우공동모금,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한 대학교 강의실 토론수업 내용입니다.

곧 핵전쟁이 일어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핵폭발을 피해갈 수 있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6명밖에 살 수 없다.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것을 감안하여 다음 10명 중 꼭 생존해야 할 6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수녀(종신 서원을 했으므로 결혼할 수 없는 상태) / 의사(공산주의자) / 교사(일본인) / 갱생한 창녀(그러나 언제라도 이전 생활로 돌아갈 소지가 큰 상태) / 여가수(품행이 나쁘기로 소문남) / 정치가 / 여류 핵물리학자 / 농부(청각 장애자) / 눈먼 소년 / 나 자신(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는 백수 상태)

사람마다 하나씩 조건이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게끔 만들어진 문제였다. 대부분 두 가지 점에서는 동의가 되었다. 첫째, 정치가는 제외. 둘째, 나 자신은 포함. 아무런 기술이 없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인구 증식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먼 소년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A그룹은 실리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 B그룹은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 :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여섯 명은 어떤 형태로든 공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어서 다른 사람 보다 오래 살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린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하고,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도 없는데다가 볼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나라 세우는 것을 돕죠?
Ⓑ : 눈이 멀고 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 : 눈먼 소년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섯 명이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A그룹의 논지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 장영희, 『내 생애 단 한 번』 中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요약

11월 29일(수), 양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2017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성우하이텍 임직원 25명을 비롯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 김치들을 웅상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노인무료급식소 등 100여 곳에 전달하며, 또 한 번 미소 띤 얼굴들을 만났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8일(토), ㈜아산성우하이텍 구내식당에서는 임직원 20명이 주말도 잊은 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완성된 김치는 환희애육원,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하며 보람찬 하루를 완성했다.

'성우공동모금'은 2017년 8월부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다. 바로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Food Sharing)' 사업이다. 2014년부터 진행하던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후원 사업을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2017년까지 진행하고, 그 대안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직원식당에서 매주 밑반찬을 지원하여 양산시 소주동 주민센터 내 냉장고를 가득 채우기로 하였다.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어 음식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음식 및 식료품을 기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아산성우하이텍도 이에 질세라 2018년 1월 5일,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신창면과 선장면에 각각 전달하였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달해 오던 성금으로 신창면과 선장면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주셨다.

㈜성우하이텍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매월 특별한 3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피스쿨' 거주 장애인들과 대중목욕탕을 함께 방문하는 시간이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 원래의 취지이지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글쎄? 처음에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봉사'가 무겁게 다가와서 함께 목욕하는 동안 어느새 무거움이 가라앉고 만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창한 의미보다 "조금 특별한 이웃과도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를 느끼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온다.

2010년부터 시작한 '성우공동모금'에 왜 임직원들은 매월 꾸준히 정성을 보탤까? 왜 해마다 김장봉사를 하고, 달마다 목욕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주마다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 사업에 기꺼이 동의할까?

그때 B그룹에 속해 있던 진기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평소 심하게 말을 더듬어 보통 토론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였다. 진기는 말을 더듬으며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커다란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자기 시간을 쪼개 그를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다. 진기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했지만, 말더듬 증상 때문에 그가 어렵사리 하는 말은 어쩐지 더욱 진지하고 진실되게 들렸다. 잠시 쉬었다가 진기는 다시 입을 열어 결론을 지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 장영희, 『내 생애 단 한 번』 中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착한이웃 나눔냉장고 반찬 지원 사업 (푸드셰어링)

양산시 소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몸 어르신, 부자가정, 장애인가정 등 먹거리 해결이 어려운 돌봄이웃이 먹거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 사업을 전개, 지난 8월 22일 소주동주민센터 내 냉장고를 설치해 사업에 들어갔으며 성우하이텍은 지원식당에서 밑반찬을 주 1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음식 및 식료품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음식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8.23. CNB NEWS

PICK ME!
주인공은 나야나!

커피한잔할까요?
둘이마시면 을매나맛있게요

할다면 한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밥은 먹고 하자!

오늘을 즐기자!

꽃길만 걸자

웃음 게임에서 시작된다

퇴근합시다! #로그아웃 #수신거부

가즈아!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다.

살짝 미치면
세상이 즐겁다

Let's
Go!

나는
나다!

새롭게
행동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다

새해 다짐 스티커로
RE start!

'2017…'이라 적었다가 고치기를 부지기수.
2018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니, 당황스럽기만 하다면 여길 주목해주길!
한 달 간 조금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비책이 여기 있다.
업무수첩에도, 사무실 머그컵에도, 휴대폰 뒤에도,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새해 다짐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한 번 Let's Go!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우가족도, 그렇다

SUNGWOO HITECH

국내

㈜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